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5년 연속 하강곡선을 긋고 있는 일본 출판시장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며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문·사회과학서 전문 도매상인 스즈키서점이 지난해 12월 7일 파산했기 때문이다. 총채무액은 4백억원이지만, 거래처가 대부분 유수의 학술서 출판사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여파가 크다. 전국 70개 출판 도매상 가운데 10위권 규모인 스즈키서점은 왜 문을 닫았나?

스즈키서점 도산으로 유통구조 개조론 비등

스즈키서점은 1948년 설립됐다. 거래처 매출 비중은 전국 대학의 구내서점(대학생활협동조합)이 40%, 대형서점이 60%였다. 학술서에 밝은 사원 61명을 두고 대형 도매상들이 소홀히 하는 학술서의 구색 및 진열에 세세히 신경을 써서 점의 신뢰는 절대적이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부터 적자경영 상태였고, 매출액은 2000년에 1천3백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20억원이나 격감할 정도로 악화일로였다. 지난해 11월에는 거래 출판사들에게 '8월 말 현재 시점 기준 채권액 중 36% 균일 탕감 및 새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요청'을 했으나, 미결제액 증가와 일부 출판사에 편파적인 공급률을 적용해온 데 대한 불신으로 거절당했다. 경영난에 처할 때마다 구제해준 학술출판의 간판 이와나미(岩波)서점 역시 9월경부터는 자금난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 중소도매상들과의 영업양도 협상도 성과가 없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대학생협동조합연합회(스즈키서점과의 거래비중 15%) 역시 영업전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12월 6일 최대 도매상인 닛판(日販)으로 거래처를 일원화시켰다. 대부분의 출판사들도 거래를 중단했다.

420개 출판사와의 거래량 가운데 1/5은 이와나미가 차지했던 탓에 채권 피해액도 90억원 수준으로 가장 컸다. 이와나미의 2000년 매출액은 2천5백억원 규모로, 스즈키서점과 전체 물량의 15% 이상을 거래해왔다. 1999년부터는 이와나미 상무이던 사카구치 아키

스즈키서점의 도산과 어린이독서법 제정

일본의 재래식 유통시스템에 경종 울려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스즈키서점의 도산을 다룬 출판유통 전문지《신문화》최근호.

라(坂口顯)를 스즈키서점 회장으로 앉혀 부동산 매각과 직원 삭감 등 경영개선 노력을 해오던 터였다. 대주주 역할을 해온 이와나미의 위기론에 대해, 오츠카 신이치(大塚信一) 이와나미 사장은 "경영상 커다란 파장이 있겠지만 출판사의 존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사카구치 회장이 밝힌 스즈키서점의 적자 체질과 도산의 요인은 출판사·서점 위주 경영 및 거대 도매상과의 경쟁에 따른 저마진율(7.2%), 학술서에 국한된 상품구색으로 인한 저수익률 등을 꼽는다. 수익구조 개선 없이 상시적 도산 위기를 이와나미가 막아왔던 셈이다. 일본 언론은 지식유통 쇠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출판계의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출판계 역시 재래식 유통시스템에 안주해온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경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출판단체들은 본격적인 유통구조 개선의 교훈으로 삼자는 성명을 냈다. 지난해 일본의 순폐업 서점수가 1천1백개에 이른 가운데, 일본 출판계의 상황이 결코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일정부, 학교도서관에 6천5백억원 투입 결정

구립 5일 일본 국회에서 '어린이독서활동추

진법'이 통과됐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독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환경 정비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을 '어린이 독서의 날'로 정했다.

12월 10일에는 민관합동의 긴급 포럼을 열어 어린이 독서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고, 다음날 정부(총무성)는 향후 5년간 6천5백억원을 학교도서관 도서구입예산으로 책정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도서관 표준 장서량을 달성하기 위해 4천만권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의 연평균 도서구입비 1천억엔 규모에서 대폭 증액한 것으로, 어린이독서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학습지도요령 및 종합학습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갓난아기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북스타트 운동의 전국적 확산, 전국 7천5백개 초중고교에서 실시중인 '아침 10분 독서', 각급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 의무화, 일부 지방의 초등교사 채용시험 과목으로 채택된 구연동화 실기, 고교생들의 필독서 30권 읽기 및 졸업논문 의무화 검토 등 독서정책과 독서운동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 '미디어셀러'에 일희일비하고, 개인적 자발성에만 호소하는 우리의 독서환경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국 일본과 비교하기가 겁난다. 축구공, 대통령 선거 기표, 돈의 커넥션 등 세계의 동그라미에 가려 올해도 공천다면, 미래의 지식강국은 그만큼 골대에서 멀어질 것이다. ■